



근대제주의 기업가 南洲 康性益*

고 광 명(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연구교수)

I. 머리말

이 글은 제주도에서 운송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며 제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한 근대제주의 대표적 기업가인 남주(南洲) 강성익(康性益)의 기업가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그는 晴岩 朴宗實과 함께 근대제주에서 제주도 토착자본을 바탕으로 상당한 기업가적 성과를 이룩한 제주경제의 산증인이며 대들보 역할을 수행하였던 인물이다.

朝鮮實業信用大鑑(1931)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활동한 29명의 기업가 가운데 한국인은 18명(62%)으로 일본인 11명(38%)에 비해 다소 많았다. 이들 기업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업종은 잡화와 포복, 미곡 관련 업종 순으로 나

타났다. 당시 제주도에는 7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일본인 회사는 3개사, 한국인 회사는 4개사가 설립되었다. 특히 한국인이 경영활동에 참가한 제주미유조합(1919년)은 자본금이 1만5천3백圓(불입자본금 1만5천3백圓)으로 다른 주식회사에 비해 자본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매출액은 6만圓으로 제주전기주식회사(3만圓), 제주주조주식회사(3만圓)에 비해 2배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신용, 지불, 업태는 A등급으로 다른 6개 주식회사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1927년 강성익이 설립한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는 자본금 7천원(불입자본금 7천원)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했으며, 신용, 지불, 업태는 C등급으로 그다지 양호한 편은 아니었다. 그런 상황 속에

* 본고의 자료는 김희철·고광명·진관훈(2006) 『일제하 濟州島 기업가 연구』, Art21 및 고광명·진관훈·김희철(2006) 「제주도 기업가 南洲 康性益 연구」, 『濟州島研究』 제29집, 제주학회 등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서도 강성익은 왕성한 기업가활동을 통해 근대 제주경제의 실권을 장악하며 지역자본 형성과 제주도민의 운송업 발전에 헌신한 독보적 인물이다.¹⁾

또한 그는 기업가활동을 수행하면서 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서귀포 지역에 남주학원(南洲學園)을 설립하는 등 사회적 공헌을 다했다. 그리고 영업세 납부실적으로 보더라도 강성익은 제주경제의 실권을 장악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했으며, 기업가로서 나름대로의 기업인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제주의 기업가 남주 강성익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 교통·운수업의 창시자뿐만 아니라 수출업의 선구자로서 오늘날 제주도 기업가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강성익의 생애와 경륜

1. 강성익의 생애

강성익은 제주도에 개화(開化)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1892년 9월(호는 南洲, 본관은 信川) 서귀포읍(西歸浦邑) 법환리(法還里)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그의 집안사정과 소년시절이 어떠한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억을 가진 친지나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강성익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부지런했고,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문명에 눈을 떠 일찍부터 식견을 넓히고자 노력했으며, 현실 사회에 과감히 도전하는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²⁾

강성익이 18세가 되던 해인 1910년에 한일합병(韓日合併)이 되자 그 이전부터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며 약탈을 해 오던 제주 근해의 황금어장에 대한 일본인 진출이 급증하였다. 1870년대부터 일본의 잠수기(潛水器)어선들이 제주도 연안에서 생산되던 양질의 전복을 탐내어 제주 연근해에 출몰하여 씩쓸이 어업을 일삼고 있었다.³⁾ 이러한 제주도 어민·해녀의 수입원천이 되었던 제주도 황금어장은 일본 잠수기업자들이 침탈하는 대상으로 전략하고 말았다.⁴⁾ 더욱이 1920년대부터 어선 동력화가 가속화되고 전복·소라의 대량 채취가 가능해 지면서 이것을 노리는 해산물 도매상인이 늘어났고 전복·소라의 껍질을 이용해 단추를 만드는 패각공장이 설립되기 시작했다.⁵⁾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강성익은 1918년 26세 때부터 서귀포 부두가의 일본인들과 경쟁하면서 단추공장을 설립하였다. 당시 일본인과 경쟁하며 단추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기술과 자본이 영세한 도민의 입장에서 확실히 모험이었으며 대단한 도전이었다.⁶⁾ 하지만 강성익은 해가 거듭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자본이 축적되었는데, 이러한 자본을 기반으로 도내 육상교통 사업에 진출하였다.⁷⁾

1) 岡田寅喜編(1931), 『朝鮮實業信用大鑑』, 日本興信所京城支所, 18~19쪽.
 2) 강용삼·이경수(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태광문화사, 455쪽.
 3) 河原典史(2001), 『植民地期の韓國濟州島における日本人經營の任請製造業—竹中任請製造所の濟州分工場を中心に』, 『空間と移動の地域地理』, 3, 地域情報研究センター, 205~238쪽.
 4) 20세기 초부터 일본 어부들은 좋은 포구와 살기 좋은 기후 조건을 지닌 서귀포에 찾아와 솔동산 지역 부근에 어업 전진기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났고 제주도민들은 서귀포 경찰관 주재소를 폭파하려고 동진(東進)하여 서호촌(西好村)까지 이르렀다. 이에 겁을 먹은 일본 어상(漁商)들은 솔동산 일대의 땅을 아주 산값으로 강성익(康性益)씨에게 넘기고 떠났다고 하는데, 이 토지들을 기반으로 강성익은 뒷날 산남의 갑부가 되었다고 한다. 《제민일보》 2004년 7월 22일.
 5) 朝鮮總督府(1929), 『生活狀態調査 基二 濟州島』.
 6) 고광명(2005),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공장·회사설립과 경영활동-남주 강성익과 우공 황순하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27집, 제주학회, 49-76쪽.
 7) 강용삼·이경수(1984), 위의 책, 456쪽.



당시 제주도의 도로는 1915년에 일주도로 181km가 개통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운행하게 되었다. 이때 대중교통 수단으로 제주도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5년 2월에 박금혁(朴禽赫)이 설립한 '제주동부자동차회사'가 그 효시이다. 이 회사는 6인승 포드 합승으로 제주-성산포간을 운행하였으며 일명 동부차부(東部車部)라고도 칭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최윤순(崔允淳)⁸⁾은 제주-모슬포간을 운행하는 제주통운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사의 별칭은 서부차부(西部車部)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성익은 산남지역의 운송업 발전을 위해 1926년에 남부자동차회사를 서귀포에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서귀포-모슬포간과 서귀포-성산포간을 동시에 운행하여 남제주군 전역을 관할함으로써 제주시의 다른 회사에 비해 운행 지역의 범위가 넓었다.

운영 초기 자동차는 그 이용이 관리(官吏)나 부유층에 국한되어 서민들에게는 단순한 구경 거리에 불과했지만 제주도 육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컸다.

한편 강성익은 교통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여객 외에 화물운송까지 전담하는 등 이 업계의 실력자로 급성장하기 시작한다.

그의 재력은 1942년 4월 서귀포상공회의소 소장에 피선될 당시 산남 제1의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있었는데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인 토지였다. 또한 그는 친지와 이웃은 물론 인연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원근(遠近)을 가리지 않고 경조사 때마다 찾아다니며 도민과 고락을 나누었다. 해방 후 남북간에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4·3을 겪는 와중에서도 강성익 개인 신상에는 아무 탈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도민에게 베풀었던 그의 인간적인 온정이 도전역에 알려졌기 때문이다.⁹⁾

그리고 해방 다음 해인 1946년에 제주자동차를 인수하여 사장이 된 강성익은 어려운 정국으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의 본분을 꾸준히 지켜 도민의 발인 육상교통의 주역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긴 강성익은 1950년 5월 제5대 남제주군수(1950년 5월~1953년 9월)로 임명되었으나 취임한 지 1개월 만에 6·25동란이 발발(勃發)하였다. 물론 이것은 그가 처음 맡았던 관직이었으나 그에게는 극복해야 할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제주4·3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피해 때문에 극도의 식량난에 허덕이던 시절이라 이들 피난민의 쇠도는 설상가상의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구호대책에 군정이 모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강성익은 도청을 오르내리며 구호 곡물의 증배를 호소하고 때로는 사재를 털어가면서 난민구호에 심혈을 바쳤다.

그러던 중 그의 남제주군수 재임은 휴전 협정 후인 1953년 9월로 끝났지만 전쟁 중 후방의 소임을 다하면서 별일 없이 난국극복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행정 수완과 평소 인심을 얻어놓은 데 있었다. 이후에도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군민(郡民)들에게 양곡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가난으로 진학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돈을 대주어 공부할

8) 최윤순은 1925년 제주통운주식회사를 일본인 萩原駒藏과 합자회사로 설립하여 제주도내 자동차 운수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삼도리에서 소라통조림공장을 설립·운영하였고 제주상선주식회사(1922년), 제주면업주식회사(1924년), 제주전기주식회사(1925년)의 취체역도 겸직하였다. 제주상공회의소(1991), 『濟州商議五十五年史』, 189쪽.

9) 강용삼·이경수(1984), 위의 책, 457쪽.



수 있도록 하는 등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다.¹⁰⁾

그러나 강성익의 정계진출은 운이 따르지 않아 세 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처음 입후보한 것은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남제주군수에서 물러난 지 8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6,469표를 획득하여 강경옥(康慶玉)과 11,670표 차이로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그는 다시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역시 실패하고, 또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제5대 의원(민의원 및 참의원) 선거에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¹¹⁾

그렇지만 강성익은 1960년 12월 29일에 실시된 초대 민선 제주도지사로 당선되면서 ‘大濟州建設’¹²⁾을 도정지표로 내걸어 평소 지녀온 지역개발사업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를 위해 중앙의 정계요인들과 활발한 접촉을 벌이며 노심초사했으나 그 뜻을 펴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너무나 빈약했다. 당시 민주당정권은 소위 신·구파간의 갈등으로 지방행정에 눈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1961년 봄 장면총리가 미국 매카나기 대사 등을 대동하고 제주를 방문했을 때 제주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지원약속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강성익의 꿈은 5·16 군사쿠데타라는 정국의 변화로 말미암아 무산되었고 그의 제

임은 5개월 단명에 그쳤다.¹³⁾

강성익은 평소 이런 말을 곧잘 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 민주주의가 별 것인가. 위로 골고루, 아래로 족족 권리를 누리며 잘사는 것이 민주주의지.”

또한 이런 말도 자주 했다고 한다.

“요즘 젊은이들 신문은 잘 안 본단 말야. 소주 몇 잔 값이면 세계경제를 훤히 알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의 일화는 강성익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분배관,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강성익은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 근·현대를 풍미하던 제주도, 특히 산남지역에 우뚝 섰던 제주도 경제계의 거목이었다. 또한 그는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이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등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였다.

2. 강성익의 경륜(經論)

192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약 40년간에 걸쳐 제주도 경제를 장악했던 두 인물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산북(山北)의 청암 박종실과 서귀포 일대를 중심으로 산남(山南)에서 활약했던 남주 강성익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축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오늘날 제주경제

10) 이러한 일화가 전해진다. 가파도(加派島)에 흉년이 들어 주민들이 겨울을 넘기기 어렵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성익은 보리 1백여 가마를 사들여 이를 현지로 보내 나눠먹도록 한 일이 있었다. 그의 독지에 힘입었던 가파도 사람들은 1960년 12월 29일 처음 도지사선거가 실시되자 이전의 고마운 은혜를 잊을 수 없어 전체 투표 중 90% 이상의 지지표를 강성익 후보에게 던져 보답했다고 한다. 강용삼·이경수(1984), 위의 책, 457쪽.

11) 法還마을회(2000), 『法還郷土誌』, 503~507쪽.

12) 강성익은 민선지사 취임사에서 ‘대체주건설’이라는 전제하에 시장방침을 국토개발, 관광개발, 그리고 농수산 진흥 등을 역설하였다. 당시 도내·외적 상황으로는 이러한 구상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많았으나 강성익은 제주의 미래와 근대화를 위해 농수산업을 바탕으로 한 제주경제의 도약을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실현시키려 노력했다. 특히 농수산업 진흥은 제주가 천연적 축산적지인 점을 감안한데서 온 구상이었으며 다른 한편, 과거 강성익 자신이 수산가공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실한 계획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여겨진다.

13) 法還마을회(2000), 위의 책, 507~508쪽.



의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다.¹⁴⁾

특히 강성익은 스스로의 노력과 토착자본으로 부를 형성한 제주도 기업가라는 데에 사회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그의 재력은 널리 중앙에까지 알려졌지만 1968년 12월 78세로 작고할 때 그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었다. 그는 살아생전 서귀포에 남주학원(南洲學園)을 설립하여 산남 지역 중등 교육에 이바지하였고, 제주도 초대 민선지사로서 '대제주건설'을 주창하는 등 제주도 지역개발에 선구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이처럼 육영사업가와 행정가이기도 했던 강성익은 특히 1961년 1월에 초대 민선 지사로 당선된 후 도정지표로 '대제주건설' 계획을 내걸었다. 이 계획은 제주도민에 의해 작성된 최초의 제주종합개발 로드맵(road map)이며, 제주미래 건설의 청사진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중앙정부의 무능력과 무관심 속에서 경제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던 당시 제주도 경제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 연륙사업(連陸事業)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그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매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도·내외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받기까지도 했다.¹⁵⁾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제주경제 건설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제주도의 자원과 더불어 지정학적 여건이 각광을 받으면서 다방면에 걸친 개발 사업이 착수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현안은 도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지만 이후 역대 지사들도 내륙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연육(連陸)사업을 가장 우선순위의 당면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업은 1979년 4월에 고속여객선 한일 2호가 완도항로를 개척하여 56마일 거리를 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었다.

또한 이보다 앞서 1977년 4월 부산항로에 카

페리 1호가 취항하여 종전보다 5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으며, 제주-목포간에도 카훼리 2호가 취항하여 96마일 항로를 6시간으로 단축시켰다. 강성익이 처음 주창할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난제였지만 그가 주창했던 연륙(連陸)의 꿈이 마침내 실현을 보았던 것이다.¹⁶⁾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걸으면서 생각하라.'는 이 말은 강성익이 그의 측근이나 후학들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일러주던 말이었다. 이처럼 강성익은 개인차원이 아닌 제주도 개발과 경제적인 대화를 위해 숙고하고 중단 없는 도전을 요구하며 몸소 실천했다고 보아진다.

한편 강성익은 계산에 가장 밝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일부에서는 그를 주먹을 쥐듯 돈만 쥐는 사람으로 평가를 한다. 일단 들어온 돈을 놓지 않은 구두쇠라는 뜻이다. 또한 강성익은 거래가 분명하였다고 한다. 즉 받는 것도 철저하고 주는 것도 철저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세금을 받으러온 세무공무원이 1원을 받지 않고 나가자, 그 세무공무원을 불러 들어 혼을 냈다고 한다.

"이 사람이야, 왜 1원을 받지 않고 가냐. 10월에 1원이 모자라면 10월 구실을 못해요. 그리하여 무슨 돈을 벌겠다고 좃쫓."

이처럼 강성익이 재력가이면서도 '구두쇠 영감'이란 별명을 확실하게 굳혀 버린 것은 그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나 젊은이들을 만나면 반드시 '주먹을 쥐는 철학'을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 가지의 예를 들면, 어느 해 남주학원 졸업식에 참가하여 이사장 회고(回顧)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졸업생들을 상대로 '주먹을

14) 강용삼·이경수(1984), 위의 책, 454쪽.

15) 남주고등학교총동창회(1991), 『南洲同窓名鑑(1958~1991)』.

16) 강용삼·이경수(1984), 위의 책, 455쪽.



취는 철학'을 펼쳤던 것이다.

“여러분, 젊은이들 들어봐, 돈 없으면 거지가 되거나 도둑놈이 되는 거야. 돈버는 데는 귀찮이 없어. 열심히 벌어야 해. 부자가 되려면 벌 돈을 쓰지 말고 꼭 쥐고 있어야 해요. 그렇다고 돈만 쥐면 험해져요. 정신을 함께 쥐어야 하지. 우리 속담에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가 물어가도 삼다고 그랬지? 캉캉한 밭에 삼밭을 가 봐요, 무섭지. 그러나 주먹을 불끈 쥐면 힘이 생겨. 바로 그거야, 1원짜리 동전 하나도 새나가지 않을 정도로 항시 주먹을 쥐고 살아가 봐요. 틀림없이 부자가 되지.”

또한 강성익의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일화가 더 있다.

“재산이란 샅 사람들의 문제요, 죽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태연자약한 도인에 가까운 생각, 범인(凡人)들의 마음을 뛰어넘은 대인(大人)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죽음에 앞서는도 범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강성익의 한평생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결국 돈과 관련된 그의 경제철학은 지연전술과 구두쇠 철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쓰지 않으면 버는 것이라는 절약정신, 꼭 지출해야 할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을 넘겨서 지출하는 지연전술, 주먹을 불끈 쥐듯 돈을 놓아 버리지 말라는 구두쇠 정신 등이었다.

Ⅲ. 강성익의 기업가활동

1. 강성익의 기업활동

가. 회사설립 및 경영참여

강성익은 1918년 4월 서귀면 서귀리에 강성익

통조림공장을 설립하였다. 동 공장은 자본금 5,000圓으로 시작하여 전복, 소라통조림 등을 제조하였다. 1925년 현재 시점에서 연간 노동력 6명으로 연간 730상자를 생산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8,430圓으로 제주도에서는 일본인을 제외한 한국인이 설립한 현승오통조림공장(자본금 9,000圓, 생산액 1,050상자, 매출액 13,650圓) 다음으로 제2위를 차지하였다.¹⁷⁾

또한 강성익은 같은 시기에 자본금 1,000圓을 투자하여 조개단추를 조제하는 강성익조개단추공장을 설립하였다. 연간 노동력은 20명으로 연간 1,760관을 생산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6,160圓으로 제주도에서 제3위를 차지하였다.

1920년대 이후에는 제주도에서 조직형태를 가진 회사들이 잇달아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회사들의 대부분은 운수회사이거나 해운회사였다. 그는 1927년에 설립한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의 취체역으로 취임하면서 근대기업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처럼 강성익은 1927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활동을 시작하면서 운수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를 계기로 회사설립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화운송주식회사(1935년)를 비롯하여 제일전분주식회사(1939년), 제주산업주식회사(1941년), 제주자동차주식회사(1943년) 등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특히 제일전분주식회사는 1935년 서귀면에 자본금 100,000圓을 단독으로 투자하고 순수한 도민 자본에 의해 전분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당시 그가 회사설립 및 경영에 관계한 7개사 중에서 4개사는 1940년대 초반에 해산되거나 상호를 변경한 회사들이다(〈표 1〉 참조).

17) 朝鮮總督府(1929), 『生活狀態調査 基二, 濟州島』.



〈표 1〉 강성익의 회사설립 및 경영참여

(단위 : 圓)

공장 및 회사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	자본금	소재지	국적	소멸시기	소멸형태
강성익통조림공장	강성익	통조림제조업	1918	5,000	서귀면	한국		
강성익조개단추공장	강성익	조개단추제조업	1918	1,000	서귀면	한국		
제주남부운주주식회사	川崎増造 · 송문준	자동차운수업	1927	7,000	우면	합자	1942	해산
소화운송주식회사	김근시	운송업	1935	10,000	제주읍	한국	1942	해산
제주도해조주식회사	양두석	해조류판매업	1938	80,000	제주읍	한국	1940	상호변경
제일전분주식회사	강성익	전분제조업	1939	100,000	서귀면	한국		
제주도패구주식회사	田中音吉	패구제조판매업	1940	50,000	서귀면	일본		
제주산업주식회사	竹中新太郎	농산물가공판매	1941	100,000	제주읍	일본	1943	상호변경
제주자동차주식회사	萩原駒藏	자동차운수업	1943	500,000	제주읍	일본		

자료 : 朝鮮總督府(각 년도),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에서 조사 작성.

나. 취체역 재직기간

강성익은 1910년대 후반 통조림, 조개단추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공장대표로서 제주도 제조업 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성익이 회사경영에 참여한 실태를 살펴보면 취체역은 회사설립에 관계된 7개사에서 재직하였다. 취체역의 재직기간은 제주남부운주주식회사 4회, 소화운송주식회사 3회, 제일전분주식회사 2회를 역임하였으며, 나머지 4개사에서 1

회를 역임하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운수업 3개사, 해조류가공·판매업 2개사, 농산물 가공 및 전분 제조업 각각 1개사로서 이중 대부분을 자동차운수업에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참조). 결국 강성익은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업을 통해 제주 지역 경제발전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강성익의 취체역 재직기간

(단위 : 圓)

공장 및 회사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	자본금	취체역	회수
강성익통조림공장	강성익	통조림제조업	1918	5,000	-	-
강성익조개단추공장	강성익	조개단추제조업	1918	1,000	-	-
제주남부운주주식회사	川崎増造 · 송문준	자동차운수업	1927	7,000	1927-1942	4회
소화운송주식회사	김근시	운송업	1935	10,000	1935-1943	3회
제주도해조주식회사	양두석	해조류판매업	1938	80,000	1938-1940	1회
제일전분주식회사	강성익	전분제조업	1939	100,000	1939-1942	2회
제주도패구주식회사	田中音吉	패구제조 판매업	1940	50,000	1940	1회
제주산업주식회사	竹中新太郎	농산물가공 판매업	1941	100,000	1941-1943	1회
제주자동차주식회사	萩原駒藏	자동차운수업	1943	500,000	1943	1회

자료 : 〈표 1〉과 동일



다. 영업세 납부실적

일제하 제주도내 기업가들의 영업 실적을 살펴 보기 위하여 당시 제주도내 기업가별 납세기록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제주도에서 지역별 영업세(본세) 7圓 이상 납부자는 제주읍 281명(개인 266, 법인 15), 한림읍 147명(개인 143, 법인 4), 애월면 40명(개인), 조천면 53명(개인 32, 법인 19)으로 총 468명이었다.

지역별로 납부금액을 보면 전체 20,743圓87錢 중에서 제주읍 12,383圓19錢(개인 10,281圓54錢, 법인 2,101圓65錢), 한림읍 6,496圓52錢(개인 5,304圓, 법인 1,192圓52錢), 애월면 985圓(개인), 조천면 876圓16錢으로 제주읍이 50% 이상 납부하였다.¹⁸⁾법인 회사별 영업세는 제주상사주식회사(490圓56錢), 제주통운주식회사(369圓92錢), 제주상운주식회사(139圓54錢), 제주주조주식회사(118圓12錢) 순으로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기업가로 박종실은 제주읍내 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 6개사에서 총 1,307圓13錢(84.2%)을 납부함으로써 개별기업가로는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순하는 제주읍내 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1개사의 영업세 118圓12錢(7.6%)과 2개사의 견적액 200圓을 납부하였다. 강성익은 제주읍내 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1개사의 영업세 98圓63錢(6.36%)과 1개사의 견적액 100圓을 납부하였다.¹⁹⁾한편 일본인 기업가로 제주도내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한 竹中新太郎은 제주읍내 회사 전체 견적액 550圓 중에서 1개사의

견적액 100圓과 한림읍내 1개사의 영업세 92.52圓(100%)을 납부하였다.

2. 강성익의 경영활동

가.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는 1927년 3월 4일 우면서귀리에 자동차 운수업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설립등기는 1927년 3월 15일). 동사는 회사대표 취체역 川崎増造·宋文準이 자본금 7千圓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운수회사이다.²⁰⁾당시 동사의 1주당 금액은 20圓이고 1주당 불입금액은 7千圓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취체역은 川崎増造, 宋文準, 中村鶴松, 四郷武十, 玄兼五, 康性益, 金成信 등이며, 감사역은 尾上貞彦, 四本正作, 金玉文, 宋祥五 등이 선임되었다.²¹⁾ 1929년 2월 25일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기존의 취체역 7인, 감사역 4인에서 취체역 3인, 감사역 2인으로 경영진을 대폭 줄이는 회사정관 일부를 변경하게 된다. 이 정관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취체역 7명은 임기 만료되어 사임하게 되었고, 康性益(회사대표 취체역), 康翼孝, 康恩贊 등이 선임되어 취임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감사역 4명은 임기 만료되어 사임하게 되었고, 萩原駒藏, 吳南一이 선임되어 취임하게 되었다.²²⁾ 1931년 8월 27일 감사역 萩原駒藏은 임기 만료되어 퇴임하였고 동일 임시주주총회에서 康用己가 감사역으로 선임되어 취임하게 되었다.²³⁾

그 후 동사는 1936년 10월 1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사무소를 서귀면 서귀리로 이전하

18) 濟州商工會(1940),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12쪽.
19) 濟州商工會(1940),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12쪽.
20) 《東亞經濟時報社》1927년3월4일.
21) 東洋經濟新報社編(1927),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22) 東洋經濟新報社編(1929),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23) 東洋經濟新報社編(1931),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게 된다. 동 회의에서 취체역 康性益, 康翼孝, 康恩贊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康性益, 康恩贊은 재선 중임하고 吳南一이 선임되어 취임하게 된다. 또한 감사역 康用己, 吳南一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康用己는 재선 중임하고 康元範이 새롭게 선임되어 취임하게 된다.²⁴⁾ 동사는 1942년 7월 30일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해산하기로 결정하여 취체역 康性益(회사대표 청산인), 吳南一, 康翼孝 등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종결하게 된다(해산등기는 1942년 8월 8일).²⁵⁾

나. 제주자동차주식회사

제주자동차주식회사는 1944년 제주도내 3개 자동차회사(제주동부자동차주식회사, 제주통운주식회사, 제주남부자동차주식회사)가 통합되면서 제주읍 삼도리에 설립하게 된다(설립등기는 1944년 8월 30일). 동사는 일본인 萩原駒藏이 자본금 50萬圓을 투자하여 설립된 운수회사이다. 영업목적은 ① 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항사업, ② 유가증권 취급, ③ 기타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 및 조합 등이 발기하여 주식의 소유 또는 출자하였다. 동사의 1주당 금액은 50圓이고 1주당 불입금액은 28圓 80錢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취체역은 萩原駒藏(회사대표 취체역), 康性益, 森井治榮, 宇都宮市太郎, 金園常輝 등이며, 감사역 吳南一, 森井大源 등이 선임되었다.²⁶⁾ 이때 주식배분율은 일본인 51%, 한국인 49%로 회사운영의 모든 권한을 일본인이 갖도록 하여 대표이사 萩原駒藏, 朴鍾堦, 康性益, 전무 金德富가 선임되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포드 4인승 2대, 시보레 12인승 1대, 28인승과 35인승 버스 28대로 당시로는 충분한 자동차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가 없어 정

상적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버스 뒤에 목탄을 싣고 다니며 운행하였다. 운행 횟수는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 등 각각 1일 1회로 제한하였다. 그 이후 제주자동차(주)는 대표자 梁景昊로 변경되면서 취급품목은 운송사업이며 종업원 수는 93명에 이르게 되었다.²⁷⁾

IV. 강성익의 사상과 사회적 공헌

1. 강성익의 사상

가. 진리탐구정신

강성익의 출생할 당시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열강의 이권 침탈로 민족이 시련을 겪기 시작했고, 대내적으로는 조국의 자주독립, 민권사상, 그리고 자강혁신 운동을 목표로 구국운동이 일어난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강탈한 일본이 대일항쟁을 탄압하고 드디어 한일합병(韓日合併)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 들게 됐다.

한편 당시 제주도 교육상황을 보면 한문(漢文)을 배워보겠다는 젊은이가 있는 마을에서는 쌀 75말, 말 3-4필을 주어 향교에 보냈던 시기였다. 그러나 강성익은 한문서당의 문지방도 찾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었다. 이런 처지를 극복하고자 강성익은 16살 되던 어느 날 고향을 등지고 서귀포에 있던 일본인이 경영하는 통조림공장 일용직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무렵부터 낮에는 땀 흘리며 일에 종사하고, 밤에는 눈물어린 고향의 길을 열고자 인생에서 피나는 결전을 벌이게 된다. 또한 강성익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의 영향을 받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언문(言文)을 배워야 했고, 국한혼용어로 발행된 신문을 첫출부터 마지막 줄에 이르기까지 한 줄

24) 『朝鮮總督府官報』 1937年1月15日字.

25) 『朝鮮總督府官報』 1942年9月15日字.

26) 東洋經濟新報社編(1949),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27) 한라일보사(2004), 『한라연감』, 269쪽.



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고 한다. 심지어 문장 중에 만약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일일이 옥편을 찾아 읽었다고 한다.

나. 주체의식

강성익에 대한 지인들의 기억에 따르면 강성익은 ‘주체성이 뚜렷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로서 여기에 있다는 주체의식을 말한다. 이를 말해 주는 일화 하나가 있다.

남제주군 청사의 낙성식이 있었는데, 때마침 길성운 지사가 식전에 임석하게 되었다. 그는 준비한 원고 없이 약 40분 동안 당당한 목소리로 고사(告辭)를 해 내려갔다. 그는 명색이 일본 대학 철학과 출신으로 빈손으로 연설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이 났었다. 끝이어 강성익 군수가 담담한 각오로 단상에 오르게 되었고 그는 내무과장이 미리 준비해 온 식사(武辭)원고를 탁상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강성익은 탁상 위에 있는 원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길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빈손에 즉흥적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연설 시간도 길지사보다 10분 더 많은 50분 동안을 해서 참석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뚜렷한 주체적인 사고와 결단성이 있었기 때문에 민선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왔고, 과감한 제주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다

다. 청렴결백성

강성익은 평소 관리(官吏)로서 무척 청렴결백하였다. 이를 말해 주는 일화를 보면, 강성익이 민선도백으로 소임을 다할 때 일이다. 그는 급히 돈 100원이 필요하게 되어 모 국장을 부르게 됐다. ‘국장, 미안하지만 돈 있거든 100원만 빌려주시게.’ 그래서 돈을 꾸어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국장을 불러 ‘자, 이거 어저께

꾼 돈일세 하며 어김없이 돌려주었다고 한다.

또 한번은 초도순시 할 때 복제주군 구좌면사무소에 가게 됐다. 출장가게 되는 직원을 불러서 ‘내일 출장가게 되는데 꼭 점심을 싸서들오시게.’ 그런데 당일 출장을 와서 보니, 면장이 많은 점심을 사전에 준비해 놓았다. 이를 본 강성익은 ‘오늘 점심을 빵으로 가져 왔으니 내 뭇으로 준비한 것이랑 내 버려두게. 날랑 엽차나 한잔 주면 좋겠네.’ 하며 차려놓은 점심을 사양하였다는 일화이다. 특히 강성익은 재임할 때 봉급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봉급 전액은 고스란히 후생시설 등에 지원되었다.

이처럼 강성익은 남에게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이러한 면은 공직 생활에서 이미 내면화되어 있었고 타인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라. 근검절약정신

강성익은 손끝이 부르터질 정도로 일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돈을 모으노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도 잊어버리고 검약(儉約)한 생활을 일상화했다고 한다. 그래서 소신 있는 군·도정을 펼 수 있었고 청렴결백의 토대가 된 것도 근검이었다. 그는 중요한 것부터 10년, 3년, 1년, 1개월, 1주일, 하루의 단계로 생활설계를 세워 조금씩 목표를 지향했다. 생전에 강성익은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었고 온갖 노력 끝에 거금을 모았다’고 하였다.

아울러 강성익은 어려서 남과 같이 공부를 못한 한의 회복과 기업의 성공적 원인을 지역사회에 있음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이 강성익이 개인적 재산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성익은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돈을 가치 있게 쓴다는 것은 더



욱 어려운 일이다” 라는 돈의 철학을 강조하며 인간의 참(眞實)을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이러한 강성익의 독지(篤志)는 지역사회의 무수한 일꾼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인생은 짧되 교육은 길다’ 는 불멸의 진리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2. 강성익의 사회적 공헌

강성익은 1920년대 서귀포초등학교를 설립할 당시 많은 부지를 기부하였고, 토평동(土坪洞)에 있는 제주대학교 식물원의 부지도 기증하였다.²⁸⁾ 이때부터 강성익은 이미 기업에서 얻어진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기업윤리가 그의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강성익의 사회적 공헌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남주학원의 설립을 들 수 있다. 당시 서귀포 일대에는 제주시의 높은 교육 열과는 달리 중등교육이 크게 뒤져 새로운 인문계고등학교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서귀포에는 서귀농업고등학교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 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산남지역 인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기업가활동에 뛰어들어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강성익은 항상 교육에 대한 꿈을 키워왔으나 그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언젠가 만주에 출장 갔을 때 어느 사립학교 교정에 세워진 설립자 동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그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어 산남의 학생들을 제주시나 육지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딱한 사정을 항상 눈여겨 살펴왔

던 것이다.²⁹⁾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힌 강성익은 우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고향 법환리에 있는 3천 평의 토지를 처분하고, 그밖에 토지와 현금 등을 동원하여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학교설립 기금을 마련하였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아무런 주위의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다. 이 일을 해낸 강성익은 1954년 손가방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문교부(文教部) 등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갖추는 등 학교설립 준비를 서둘렀다. 온갖 노력 끝에 설립인가를 받은 남주고등학교원은 1955년 4월 서귀리 291의 3번지에 3천2백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그 이듬해 2월 재단법인 남주학원을 정식으로 인가받아, 그해 7월 남주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³⁰⁾

초대 재단이사는 강임룡, 현학건, 현중화, 강방길, 강보성 등이었다. 초대 교장에는 김계용(전 제주대학 학장)이 취임했다. 그 후 남주학원은 1966년 2월 학교법인으로 변경되어 그해 12월에는 남주중학교가 병설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으나 초창기에는 학생모집에 적지 않은 고충이 뒤따랐다. 이렇게 남주학원을 설립하고 기반을 다진 강성익은 1968년 12월에 타계하고, 이듬해 3월 그의 아들 강치남(康致南)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강성익이 보여준 기업가활동과 사회적 공헌은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행정가와 교육자, 제주의 근대화를 꿈꾸었던 제주도 기업가로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더욱이 그는

28) 法還郷土誌(2000), 앞의 책, 422쪽.

29) 남주고등학교총동창회(1991), 『南州同窓名鑑(1958~1991)』.

30) 강용삼·이경주(1984), 앞의 책, 1132-1133.



마침내 그의 소신과 의지대로 서귀포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그의 행동이야말로 '부(富)의 사회 환원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경우로 현재 제주에 사는 많은 기업가들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 기업가인 강성익에 관한 연구는 근대 제주의 경제활동과 기업가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이 된다. 특히 제주도 근대사에서 기업가의 경영활동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현대 제주도 기업가의 기업가적 특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성익은 제주도 토착자본에 기초한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를 경영하여 제주도 운송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만들었다.

둘째, 강성익은 제주도에서 통조림과 조개단추 공장을 설립·경영하며 근대 제주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강성익은 상공인단체를 비롯한 정·재계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도지사, 남제주군수를 역임하는 등 정치가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주도민에게 남겼다.

넷째, 강성익은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사적 자신의 부(富) 축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를 설립하거나 사회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실천하였다.

다섯째, 강성익은 인재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기업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강성익을 연구하고 그가 남긴 메시지를 학문적으로 되새겨보는 것은 모든 제주도민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제주도 기업가상'을 갈망하는데 그 이유가 숨어있다.

참고문헌

姜龍三·李京洙編(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泰光文化社.

岡田寅喜編(1931), 『朝鮮實業信用大鑑』, 日本興信所京城支所.

고광명(2005),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사례연구-남주 강성익과 우공 황순하의 경영활동」, 제24회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고광명(2005), 「일제하 濟州島 기업가의 공장·회사설립과 경영활동-南洲 康性益과 牛公 黃舜河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제27집, 제주학회.

고광명진관훈(2005), 「제주도 기업가 晴岩 朴宗實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고광명·진관훈·김희철(2006), 「제주도 기업가 南洲 康性益 연구」, 『濟州島研究』 제29집, 제주학회.

金榮洽編(2000),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김희철·고광명·강영순·진관훈(2006),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연구-청암 박종실과 남주 강성익의 기업가활동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21집 제1호, 한국경영사학회.

남주고등학교총동창회(1991), 『南洲同窓名鑑(1958~1991)』.

東洋經濟新報社編(각 년도),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法還마을회(2000), 『法還鄉土誌』.

濟州商工會(1940),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제주상공회의소(1991), 『濟州商議五十五年史』.

朝鮮總督府(1929), 『生活狀態調査 基二, 濟州島』.

朝鮮總督府(각 년도),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

河原典史(2001), 「植民地期の韓國濟州島における日本人經營の缶詰製造業-一 竹中缶詰製造所の濟州分工場を中心に」, 『空間と移動の地域地理』 3, 地域情報研究センター.

한라일보사(2004), 『한라연감』.

《東亞經濟時報社》1927년3월4일

《제민일보》2004년7월22일